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의 여성과 여성화술의 특성

박 윤 기

I. 서론

조이스(James Joyce)는 앤쏘니 버지스(Anthony Burgess)의 표현대로 “위대한 코믹 비전”(Wake, htm 1 재인용)인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는 버지스의 말대로 갖가지 농담과 말장난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듯하다. 조이스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이 책에서 특정한 것과 보편적인 것, 개인과 전체 인류, 역사와 자연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고자(Bowen ix)하는데, 그의 전작인 『율리시스』(*Ulysses*)가 당시 현대인들이 직면했던 삶의 어두운 실존적인 문제를 파헤치려 했다면, 『피네간의 경야』는 전작에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미흡한 부분을 부조화된 언어나 패러디, 혹은 저속한 표현 등의 아이러니를 통하여 인생의 심층부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olhemus 295).

이처럼 『피네간의 경야』는 일종의 “거대한 대서사시적 아이러니”(Frye 323)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25년 처음 선을 보인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Anna Livia Plurabelle”) 부분은 단연 최고의 산문으로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이 장

은 작품의 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이나 『율리시스』처럼 여성이 주인공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사실 이 장은 『피네간의 경야』가 정식으로 출간될 무렵엔 거의 20번에 이르는 개정을 거친 후였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이 장에 대한 조이스의 각별한 애정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평론가들의 비평을 의식해 문맥의 흐름과 내용의 서정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처음 이 장을 기획한 이후에 좀 더 편안히 읽히고,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여러 번 수정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조이스가 애칭을 한 “ALP”가 주인공인 이 장을 읽어 가면 그 내용과 문체가 여성적 특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여성인물들이 풀어내는 이야기가 그 유연함으로 인해 흐르는 강물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 강물의 흐름과 닮아 있는 「에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의 내용과 문체는 리피 강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두 명의 빨래하는 여성들의 대화에 근거한 것인데, 그들의 대화에는 각각의 화자를 구분 지을 만한 인용부호나 대시 혹은 화자 사이에 끼어 그들을 구별 지어 주는 해설자의 모호함으로 더욱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ulson 10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너 리비아를 중심에 두고 벌이는 빨래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화술이 물의 언어와 닮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특성이 여성적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에너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화술을 근거로 그들의 이야기가 곧 여성적 글쓰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기준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본 론

「진흙」(“Clay”)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좁은 세탁소에서 침묵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면, 「에너 리비아 플루라벨」의 빨래하는 두 여인들은 그 흐름의 끝이 바다까지 이어지는 넓은 리피 강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이처럼 세탁소와는 달리 사방이 트인 공간에서 이야기관을 벌이는데, 스스로를 “다정하고 더러운 더블린”(Dear Dirty Dublin)(*FW* 215)의 보호자로 자칭하고 나선다. 그런데 강둑을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녀들의 수다가 강물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류를 추적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블린 만으로부터 그 물의 발원지인 위클로우(Wicklow) 산맥의 작은 못으로 역류하는 과정에 비유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쓰롭 프라이(Northrop Frye)는 “『피네간의 경야』를 두고 역사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반(反)현현으로 묘사하는 작품”(149)이라고 말하는데, 빨래하는 여인들이 “시커멓게 물들은 셔츠”를 맑은 “강물에 빨아내는 일”(FW 196)은 더블린 도시 전체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반현현의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들이 빨아내는 더러운 얼룩은 어느 순간 애너의 때 문은 행적으로 바뀌게 되며, 그들의 빨래하는 행위 자체는 그 행적을 쫓는 이야기 구성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변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빨래하는 여인들은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분담되면서 처음엔 HCE와 피닉스 공원에서 그가 저지른 어떤 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하지만 곧 그들의 이야기는 ALP와 그녀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HCE가 조이스의 늙은 난봉꾼이었던 아버지 존 조이스(John Joyce)의 모습을 닮았고, 그의 이름인 험프리 침던 이어위커(Humphrey Chimpden Earwicker)가 빈번히 “Here Comes Everybody”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인류 집단을 상징하는 “남성적 원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인 ALP는 만인의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적 원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 그녀는 이어위커 가족의 어머니이자 리피 강의 상징이기도 하고, 결국엔 강 그 자체와 하나로 합일이 되는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ALP는 또한 남편에게는 요부와 구원자라는 이중적인 역할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때로 부자지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모성적 속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전히 매혹적인 요부와 같은 모습으로 이중적인 특성을 보인다.

애너의 요부적인 이미지는 가장 크게는 그녀의 성적인 매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남성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 중에는 그녀의 할아버지인 리버 훔버(River Humber) 영감도 포함된다. 그녀는 한 때 그와 함께 생활한 적인 있는데 그로부터 수시로 근친상간의 위협을 받곤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두고 성적인 욕망을 느낄 때면 언제나 그러한 욕망을 다른 욕구로 대체시키려는 노력을 다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빨래하는 여인들의 말대로 “백 명하고도 열하나”라는 아이를 낳 만큼의 성적인 자유를 만끽했고, 또

그들로부터는 “논다니 리비”(Livy)라는 험담을 등을 만큼 요염함을 억제하지도 않았던 여성이다. 그녀의 관능성은 아클로우(Michael Arklow)라는 산간벽지에 은둔해서 살고 있는 이른바 성스러운 대주교가 그녀의 모습을 보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애녀의 관능적인 모습을 보자 “주교인 자신의 직분을 까맣게 잊고”(FW 203), 그녀의 입술을 가져보고픈 강한 열정을 보인다.

하지만 애녀는 남편의 추문을 정당화시키려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암탉처럼 고집스런 여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주머니”(nabsack: 자궁, 말 주머니, 여성의 성기)를 이용해서 모두 합쳐 “1천 1명의 아이들”(FW 210)1)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자애로움을 지닌 모성적인 여인이기도 하다. 남편에 관한 추문은 기실 피닉스 공원의 숲에서 두 소녀가 옷을 벗고(소변을 보고) 있는 동안 HCE가 이를 엿보면서 자신의 나신을 보여 주었(수음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HCE는 더 이상 성욕이 왕성한 이른바 건장한 남성이 아니다. 이런 남편에게 애녀는 그의 시들어버린 남성적 기력을 회복시켜주려 “세상의 모든 멋진 창녀들을 그에게 바치는”(FW 200) 헌신에 가까운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HCE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가 성적으로 무기력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노쇠이지만, 그의 내밀한 죄의식이 더 큰 성적인 불능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올리시스』에서 블룸(Bloom)이 아들 루디(Rudy)와 관련된 과거의 죄의식 때문에 아내와 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단지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는 앞서 언급한 피닉스 공원에서 비밀스러운 일이 HCE가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죄의식을 상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피네간의 경야』 전체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인 애너 리비아, 이썬벨(Isobel 또는 Issy), 그리고 케이트(Kate)는 각각 아내, 딸 그리고 어머니의 상징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HCE의 숨겨진 죄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HCE는 성적인 아름다움을 물씬 풍기는 자신의 딸에 대한 욕망의 죄

1) 보르헤스(Borges)는 『칠일 밤』(Siete Noches)에서 『천 허룻밤의 이야기』에 관해 제목이 갖는 의미를 재미있게 설명하는데, 그는 여기서 “천”의 의미가 단지 지시상의 개념이 아닌 “무한”과 동의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 신비한 숫자에 “허룻밤”을 더하는 것은 영어에서 “영원히”라는 의미를 “forever and a day”라고 쓰는 이치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 조이스가 의도한 “1천 1명의 아이들”은 “천과 그리고 하나” 또한 무한한 수의 상징으로 볼지하다.

의식에 시달리는데, 그 숨겨진 욕망 뒤에는 어머니에 대한 오이디프스적 강박관념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로 HCE는 정상적인 이성을 회피하게 되고 아들인 손에 대한 동성애의 욕망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이성애든 동성애든 여기에는 모두 근친상간이라는 굴레가 덧 씌어져 있어 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지는 못한다. 물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두려움과 죄의식이라 할 수 있고 그것도 꿈의 형식으로 이야기 되고는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죄의식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자주 되풀이 되는 “Here Comes Everybody”라는 그의 별칭은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더 해 준다. 하지만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장에서 HCE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다. 그에 대한 그 이상의 과거의 전력이나 이야기는 물론 그것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다. 이곳에서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온전히 그러한 남편의 기력을 재생시킬 계획에 전력을 기울이는 애너의 모습만이 부각될 뿐이다(Wilson 234). 이처럼 조이스는 ALP의 이미지를 다변형적인 특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닌 그녀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는 물론 작품의 마지막 제 4권의 이른바 「리코르소」(“Ricorso”) 장에서도 다시 한 번 그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을 녹음할 기회를 갖게 된 적이 있는데, 이 때 그는 1930년에 페이퍼 앤드 페이퍼 사에서 이미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의 한 부분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이 장을 택한 이유는 언어가 주는 유연한 리듬감 때문이었다. 일례로 조이스는 친구인 니노 프랭크(Nino Frank)와 이 부분을 이태리어로 번역을 하면서 언어의 정확한 번역보다는 언어가 주는 소리와 운율, 그리고 리듬감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다. 이를테면 아일랜드어인 “Plurabelle”을 이태리어인 “Plurabella”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어휘가 주는 의미보다는 소리가 주는 음향적인 맛을 더 우선시 했을 뿐 만 아니라, 그 밖에 수십 개의 아일랜드어를 소리의 말장난이 살아나는 이태리어로 바꾸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Bulson 106). 실제로 조이스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을 “말의 리듬에 언어를 복속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해리엇 위버(Harriet S. Weaver)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이 작품은 강을 가운데 놓고서 두 세탁부가 담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들은 밤이면 나무와 돌이 되지요. 강의 이름은 애너 리피이고, 처음 앞부분의 단어들은 덴마크어와 영어의 잡종으로 섞여 있습니다. 더블린은 바이킹이 만든 도시로 아일랜드식 이름은 볼리클리(Ballycle)라고 합니다. 볼리클리는 “올타리로 둘러싸인 마을이나 여울”을 뜻합니다. (Ellmann 563)

실제로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이라는 말 자체가 물/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름 속에 담겨 있는 “Anna”와 “Livia”가 모두 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리피 강은 “애너 리피”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강을 뜻하는 아일랜드어에서 온 것이다. ALP는 더블린 산꼭대기에서 발원하여 언덕을 굽이치며 흘러내려 시내가 되고 더블린 만에서 바다를 이루는 물과 하나가 된다. 그런데 애너의 변모는 기원전 43년 로마의 술모(Sulmo)에서 태어난 오비디우스(Ovidius)가 쓴 『변신이야기』(Metamorphoses)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항상 어떤 사물이나 동물, 혹은 기타의 것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영원히 사는 것과 비슷한 순환의 구조를 갖는다.

조이스는 이렇듯 애너가 변모하는 과정을 내용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의 산문체에 특히나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오비디우스의 작품에서 “변신”이 한 생명이 죽는 순간 또 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영속적인 순환구조인 것처럼, 자신의 산문을 영속적 순환구조의 상징이 되는 물/강물의 흐름과 동일한 것이 되도록 했다. 바슐라르(Bachelard)는 “물은 시의 언어와 같이 원활하게 움직이고”(348), “물의 유동적인 흐름은 언어의 욕망 그 자체와 닮아 있으며, 물의 언어는 자체가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다”(35)고 말한바 있다. 그의 이 말은 결국 강물이 흐름과 인간의 언어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으로써, 이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 조이스가 의도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을 통해 언어가 주는 유동성에 관심을 집중한 조이스는 실제로 각각의 문장을 통해 수많은 강의 이름을 마구 뒤섞어 놓아 강 흐름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그는 티베트(Tibet)이나 소말리아(Somalia)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언젠가 자신의 글에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의 강의 이름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Ellmann 598). 이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세탁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의 언어적 함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의 간단한 문장을 한 예로 들어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강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 두 팔목은 곰팡이 때를 문지르느라 뒤틀리고 있어요. 그리고 젖은 아랫도리와 그 속의 죄의 괴저병!

My wrists are wrusty rubbing the mouldaw strains. And the dneepers of wet and the gangres of sin in it! (FW 196 필자강조)

이는 빨래하는 여인들이 리피 강가에 나와 빨래를 하면서 옷에 묻은 얼룩을 빨아내는 장면인데, 이렇듯 2행 남짓한 어구에 조이스는 얼핏 보아도 3개의 강 이름을 함축시켜 놓고 있다. 필자 강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빨래에 묻은 얼룩인 “곰팡이”를 뜻하는 “mouldaw”에는 몰다우(Moldau) 강이 들어있고, 젖은 아랫도리인 “dneepers”에는 물이 깊다는 의미의 “deep”와 러시아 서부에서 흑해로 흘러드는 드네프르(Dnieper) 강이 담겨 있고, 괴저병으로 번역될 수 있는 “gangres”에는 인도에서 벵골 만으로 흘러드는 갠지스(Ganges)을 연상시킨다(Wilson 231). 그런데 조이스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강들의 이름을 함축해 놓은 나머지 자신의 생각에도 “그것은 정말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강 흐름으로서의 산문적 특성은 이 장의 바로 전 장이 되는 「문사 쉘」(“Penman the Shem”)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미 예시된 바 있다.

살리노긴 역 주변을 익살맞게 미끄러지듯 흘러가면서, 행복한 날처럼 흠뻑 젖어, 졸졸거리며, 거품을 일으키고, 혼자말로 재잘거리며, 다정하게 미끄러지면서 팔꿈치로 기대고 있는 들판을 범람시키면서, 출렁대며 쏘다니는 수선쟁이 산파, 사방팔방 떠다니는 가납사니 애너 리비아여. (김종건 역)

slipping sly by Sallynoggin, as happy as the day is wet, babbling, bubbling, chattering to herself, deloothing the fields on their elbows leaning with the sloothing slide of her, giddy-gaddy, grannyma, gossipaceous Anna Livia. (195 필자강조)

그런데 위 구문에서는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청각적인 유동성이 명확하게 눈에 띈다. 인용한 산문을 읽어보면 각각의 문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흐르는 강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ALP라는 이름이 더블린 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리피 강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장에서 쓰인 문체 역시 흐르는 물이 내는 강물의 소리를 모방한다. 먼저 첫 문장만 보더라도 부드러운 유음이라 할 수 있는 “s”와 “l”운이 두운

법 등을 이루면서 물의 부드러운 속성과 빠른 흐름을 시각화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 “babbling,” “bubbling,” “chattering”은 의성어로서 그 후 문장에서 반복되는 “ing”운과 더불어 청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조이스는 인간의 언어 속에서 물 흐름의 유동성을 찾으면서 시각적인 인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산문체가 주는 청각적인 물 흐름의 소리를 형상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을 특히 소리 내어 읽어보면 산문의 각 구절과 구절 사이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유동적인 소리가 담겨 있음이 드러난다. 조이스는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을 준비하는 시기에 리피 강과는 멀리 떨어진 파리(Paris)에 살고 있었는데, 이 때 그는 자기가 쓰는 글의 문체가 강물의 소리와 닮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느(Seine) 강둑을 자주 찾아간 적이 있다(Bulson 105). 이를 보면 그가 이 장을 쓰면서 언어의 유동성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애너 리비아를 두고 하는 빨래하는 여인들의 쑥덕거림은 바로 그 자체가 강의 음성이라 할 만큼 유동적인 속성이 있다. 즉 그들이 풀어 놓는 모든 화술에는 “가쁜한 운율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음조의 변화 없이 단조롭게 계속되는가 하면 끊어지면서 분절”되는 특성이 끊임없이 나타난다(Wilson 231-32). 그런데 이처럼 사실적이면서도 허황되기 그지없는 애너에 대한 세속적인 장광설도 그들이 강물의 소리와 함께 형체가 흐릿해지며 나무와 돌로 제 각각 변모되어 가면서 결국엔 사라져 간다. “들을 수 없나니 저 물소리로. 저 철령대는 물소리 때문에.(...) 온통 흘러가는 리피강의 물소리 때문에. (...) 나무나 돌에 관해 내게 말해주요. 흘러가는 물결 에. 여기저기 찰랑대는 물소리”(FW 216).

이렇게 해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주고받는 애너에 관한 이야기는 줄줄거리며 흘러가는 강물의 소리와 더 이상 구별이 어려워진다. 결국 그들은 변모되어감에 따라 그들의 화술 또한 강물과 하나가 되는 애너에게 주체적인 자리를 넘긴다고 할 수 있다. 애너는 나무와 돌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에 머리타래 담그면서 그 물에 녹아들어 되는데, 이 때 강물의 줄줄거림은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자 화술 그 자체로 변모하게 된다. 여기서 애너 리비아의 머릿결은 조이스가 여동생을 통해 들은 이탈리아 스비보(Italo Svevo)의 아내인 리비아(Livia)의 탐스러운 머리타래에서 착상을 얻어낸 것이다. 조이스는 이 점에 관해 어느 이탈리아 언론인에게 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다(Ellmann 516). 그는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리비아

슈미츠(Livia Schmits)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리피 강의 물결이 스티보 부인의 머리타래에 비유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Ellmann 714).

그런데 에너의 머리타래는 물론 중국엔 그녀의 몸까지 녹아든 리피 강의 물결은 조이스가 원래 이 작품을 두고 지칭했던 『진행 중인 작품』(*Work in Progress*)의 제목처럼 줄곧 진행시키고자 했던 “여성적 화술”의 특성이 된다. 에너는 아들인 우편배달부 샤퐀에게서 “우편낭을 빌려 어깨에 메고”(FW 207) 집을 나오는데, “그 배낭은 우편물/예술/언어/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자궁이면서 이야기를 쏟아내는 자루”(Henke 181)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처녀의 자궁”(217)처럼 언어를 만들어 내는 장소가 된다. 스티븐은 “예술의 착상, 예술의 창안, 그리고 예술의 재생과정에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A Portrait 209)고 말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경험이란 글을 쓰는 미학의 과정이 출산의 경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된다”(Henke 77). 이렇게 본다면, 출산이 경험이 있는 에너가 언어를 조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앞서 언급한대로 자신의 자궁에서 111명의 아이를 낳았고, 또 하나의 자궁인 배낭을 이용해 1001명으로 불어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나누어준다. 인류를 연속시키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라 한다면, 그 자궁/주머니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신체의 언어”는 기존의 글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되는 것이다.

에너에 대한 이야기에 심취해 있던 화자는 “모든 이야기(telling)에는 그 나름의 가공적인 설화(taling)가 있다”(FW 213)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여성들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박윤기 299). 출산을 하듯 자궁으로부터 흘러나온 조이스의 물의 언어는 여성의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억압되고 숨겨져 있는 욕망을 표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질을 통해 1001명으로 늘어난 아이들이 탄생했듯이, 또 하나의 자궁에서 쏟아져 나온 신체의 언어야말로 여성의 이야기인 것이고, 이는 결국 “여성적 글쓰기”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 하겠다.

Ⅲ. 결 론

이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은 그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애너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주체가 여성이고 여성적 서술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빨래하는 여인들이 풀어 놓는 애너는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녀는 결국 리피 강으로서 더블린 시의 더러운 하수를 바다로 실어 나르는 정화라는 성스러운 역할의 주체자이기도 하고 또한 남편을 추문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쓰레기더미를 파헤치는 이타적인 아내이기도 하다. 그녀는 결국 물 흐름과 같은 포용력을 보이며, 그녀의 포용력은 더블린 시를 관통해서 흐르는 리피 강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

장에서 물의 흐름은 생명력의 의미하는데 “애너”와 “리비아”가 모두 생명력이 있는 강을 뜻하며, “Plurabelle” 또한 다수/다변/다산의 의미를 지니며 비옥한 생명의 원천임을 가정한다면, 그녀야말로 생명력의 강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장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소문을 근거로 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결국 리피 강의 흐름과 하나가 된다. 이렇듯 여성의 속성과 닮은 물 흐름의 유동적인 산문체는 바로 이 장에서 지배적이고 주도적이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중요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이스는 애너의 행적에 대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산문의 흐름을 강의 흐름과 닮은 여성적 화술로 이어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나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여성적 글쓰기”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조이스는 새로운 문체, 새로운 주제, 새로운 플롯과 등장인물을 끊임없이 시도했지만”(Ellmann 717),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을 통하여 그는 더욱 치밀하게 유연한 여성의 속성과 닮은 새로운 글쓰기의 단계로의 모색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재대)

인용문헌

- 바슐라르, 가스통. 『물과 꿈』. 이가람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98.
- 박윤기. 「여성주의 관점에서 읽는 제임스 조이스」. 『영어영문학』 제51권 2호 (2005): 283-303
- 보르헤스, 호르헤 루이스. 『칠일 밤』. 송병선 옮김. 서울: 현대문학, 1996.
- 조이스, 제임스. 『피네간의 경야』. 김종건 옮김. 서울: 범우사, 2002.
- Bowen, Jack. *Ulysses as a Comic Novel*.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9.
- Bulson Eric.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1959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 Joyce, James. *Finnegans Wake*. 3rd ed. London: Faber & Faber, 1975. References to this edition will be given with the abbreviated title *FW* and the page numbers in a parenthesis.
- Polhemus, Robert M. *Comic Faith: The Great Tradition from Austen to Joyc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Tindall, William Y. *James Joy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 Wilson, Edmund. *Axel's Castl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9.
- Inetrnet Source: [http://www.litfix.co.uk/joyce/Finnegans Wake](http://www.litfix.co.uk/joyce/Finnegans_Wake), htm. 1/03(2007.5.1)

Abstract**Women & Women's Writing of "Anna Livia Plurabelle"**

Yun-Ki Park

ALP in “Anna Livia Plurabelle” of *Finnegans Wake* is the wife figure and also the river Liffey, which runs through the center of Dublin in Ireland. Two washerwomen wash clothes on the opposite sides of the Liffey and gossip about her. As they describe her, they are also describing the river. The life-giving stream of water in the river is the essence of life itself. The babbling, bubbling, and gossipy sound/speech of the washerwomen is the one of the flowing water itself in the river Liffey. Water and watery words in relation of woman are, therefore, dominant, prevailing, and recurrent in “Anna Livia Plurabelle” and become the major metaphor in the chapter. The watery words have relation to the women’s writing technique, which is very diffusive, changeable, and fluid, experimented in Joyce’s other works. The new writing technique reveals the hidden, repressed, and suppressed desires of all the humankind as well as those of women. It upturns what appear to be the normal patterns of English in both linguistic and textual structure and, as a result, created for the new generation the new writing possibility.

■ **Key words**: river, sound/speech, water, watery words, fluid, women’s writing

(강, 소리/언어, 물, 물의 언어, 유동성, 여성적 글쓰기)

김경숙

미국 University of Utah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oyce's Alternative Historiographies: Re-Narrating the Nation and History.”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화추진단 재직중. jjoyce10@hotmail.com

이종일

영국 University of Essex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Order and Disorder in James Joyce's *Ulysses*.” 현재 세종대학교 인문대학 영어문학과에 재직중.

jongilyi@sejong.ac.kr

권택영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A. Bronson Alcott's Literary Apprenticeship to Emerson: The Role of Harris's Journal, Speculative Philosophy.” 저서로는 『감각의 제국: 라캉으로 영화읽기』(민음사, 2001), 『라캉 장자 태극기』(민음사, 2003) 등이 있음.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에 재직중. tkwon@khu.ac.kr

박윤기

고려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취득. 학위논문은 “제임스 조이스의 긍정적 여성관.” 현재 배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중. ykpark@pcu.ac.kr

손현주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The Self and the Mother in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Virginia Woolf.” 현재 가톨릭 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에 재직중. tressasohn@catholic.ac.kr